‘글쎄’와 ‘그러게’의 기원과 방언형

이상신*

〈차 례〉

1. 서론
2. ‘글쎄’와 ‘그러게’의 공통점
3. ‘글쎄’와 ‘그러게’의 기원과 방언형
  1) ‘글쎄’와 ‘그러게’의 기원
  2) ‘글쎄’와 ‘그러게’의 방언형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감탄사 ‘글쎄’와 ‘그러게’의 방언형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방언형을 그 출현 지역 및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방언형 간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그 형성 과정을 논하였다.

논의의 구성 및 새롭게 밝혀낸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글쎄’와 ‘그러게’의 관계를 간단히 알아보았다. 형태, 의미, 쓰임 등 여러 가지 면에서의 공통점으로 인해 방언에서 이 둘이 별 차이 없이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글쎄’와 ‘그러게’의 방언형을 살펴보고 그 형성과정을 논하되, 우선 이 둘의

*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기원적 구성에 대한 추론을 펼친 뒤(3.1)), 방언형들 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3.2)). '그러게'는 '그러기에('그러-+-기에' 혹은 '그러-+-기+에')가 줄어든 말로 보이며, '글쎄'는 중세 국어의 '그럴씨'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큼을 말하였다. 이렇게 보면 '글쎄'와 '그러게' 모두 '그러-'의 활용형에서 온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언형들은 '글쎄'와 관련된 것, '그러게'와 관련된 것, '그럼에'와 관련된 것, 불분명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의 셋은 기원적으로 '그러-'의 명사형 구성과 처격 조사 '에'의 결합에 의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4장은 결론으로서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간단히 짚어두었다.

주제어: 글쎄, 그러게, 감탄사, 활용형, 방언형

1. 서론

본고는 감탄사 '글쎄'와 '그러게'의 방언형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방언형을 그 출현 지역 및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방언형 간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그 형성 과정을 논하려 한다.

몇 가지 논의의 전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둔다. 첫째, 기존의 논의에서 '글쎄'와 '그러게'에 대한 기능적, 의미적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1] 본고의 논의는 방언형의 형태적인 면에 집

1) 그 대표적인 논의로 다음 등을 들 수 있다. 이해영, 「담화표지 '글쎄'의 담화기능과 사용의미」, 『이화어문논집』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4, pp. 129-150. ; 오승신, 「담화상에서의 간투사의 기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2-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97, pp. 53-86. ; 김은정, 「담화표지 '그래·글쎄·아니'의 기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p. 1-85. ; 우미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담화표지 연구:

중하여 기존의 논의와는 거리가 있다. 둘째, ‘글쎄’와 ‘그러게’를 함께 논의하는 이유는 이들이 의미뿐만 아니라 음상이나 쓰임 등에서도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그러게’보다는 ‘글쎄’에 상대적으로 좀 더 주목하게 될 터인데 그 이유는 ‘그러게’에 비해 ‘글쎄’가 방언량이 클 뿐 아니라 형태론적 구성도 좀 덜 투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이 두 어사의 방언형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론보다는 추정에 입각한 논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어사의 방언형 관찰을 통해 그 형성 과정에 대해 논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근대 국어 이전 문헌에 담화 표지인 이들의 문헌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하다.[2] 결정적인 증거를 대는 확실한 결론은 내기가 어렵고 방언형 간의 관계를 통한 추정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사전의 기술을 중심으로 ‘글쎄’와 ‘그러게’의 공통점을 간단히 알아보려 한다. 3장에서는 ‘글쎄’와 ‘그러게’의 방언형을 살펴보고 그 형성과정을 논하되, 우선 이 두 어사의 기원적 구성에 대한 추론을 펼친 뒤(3.1)), 방언형들 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게 될 것이다(3.2)). 4장은 결론으로서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간단히 짚어두기로 한다.

‘글쎄’, ‘그러게’, ‘그러니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p. 1-88.

2) 방언의 감탄사 ‘하모’에 대해 논한 이진호, 「감탄사 ‘하모’ 계통의 방언형에 대하여」, 『방언학』 19, 한국방언학회, 2014, pp. 121-135 역시 문헌형이나 방언형이 결코 많지 않은 어사에 대한 논의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2. ‘글쎄’와 ‘그러게’의 공통점

‘글쎄’와 ‘그러게’는 여러 모로 비슷하다. 그 형태, 품사, 의미 그리고 쓰임이 같거나 닮았다. 본 장에서는 ‘글쎄’와 ‘그러게’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글쎄’와 ‘그러게’는 형태에 공통점이 있다. 전자는 ‘ㄱㅡㄹ ㅆㅔ’의 음소 배열로, 후자는 ‘ㄱㅡㄹㅓㄱㅔ’의 음소 배열로 이루어져 X를 제외한 ‘ㄱㅡㄹ(X)ㅔ’를 공유하고 있다. X 자리에 전자는 ‘ㅆ’, 후자는 ‘ㅓㄱ’이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이다.

다음으로, ‘글쎄’와 ‘그러게’의 품사와 의미의 공통점을 사전의 기술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의 ‘글쎄’와 ‘그러게’이다.

(1) 『표준국어대사전』의 ‘글쎄’와 ‘그러게’[3]

ㄱ. 글쎄01 「감탄사」 「1」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 해할 자리에 쓴다. ¶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2」 자신의 뜻을 다시 강조하거나 고집할 때 쓰는 말. ¶ 글쎄, 그렇다니까./글쎄, 내가 뭐라고 했어요.

ㄴ. 그러게

[Ⅰ] 「부사」 자신의 말이 옳았음을 강조할 때 쓰는 말. ¶ 그러게 내가 뭐랬어?/그러게 내 말을 듣지 그랬어./그러게 그곳엔 가지 말랬잖아.

[Ⅱ] 「감탄사」 상대편의 말에 찬성하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 ¶ “그 친구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그러게요.”/“어째 이런 낡아 빠진 아파트 한 채를 사 줄 아버지 같은 물주도 아직 장만 못 했느냐? 실망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김원우, 짐승의 시간≫

3) ‘글쎄’와 ‘그러게’에 대한 주요 사전의 기술은 우미혜, 앞의 논문, pp. 28-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글쎄’와 ‘그러게’는 품사가 감탄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게’는 부사로서도 쓰이지만 둘 모두 감탄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4] 감탄사를 다시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감탄사로 하위 분류를 한다면[5] 이 둘은 의지 감탄사로 분류되겠기에 이 역시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글쎄’와 ‘그러게’는 의미의 공통점도 있다. 하지만 위 (1)의 뜻풀이만으로는 그 의미상의 공통점이 바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의미만 가져와 보면 다음과 같다.

(2) 『표준국어대사전』의 ‘글쎄’와 ‘그러게’의 뜻풀이
ㄱ. 글쎄01 「감탄사」: 「1」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 해할 자리에 쓴다. / 「2」 자신의 뜻을 다시 강조하거나 고집할 때 쓰는 말.
ㄴ. 그러게 「감탄사」: 상대편의 말에 찬성하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

위 (2)는 같은 품사의 뜻풀이를 비교하기 위해 ‘그러게’의 경우에는 (1)의 ‘[Ⅱ] 「감탄사」’ 부분의 뜻풀이만 제시하였다. 그런데

---

4) (1ㄴ[Ⅱ])의 ‘그러게’의 용례 ‘그러게 말이에요.’에서 ‘그러게’ 뒤에 반점이 찍혀 있지 않은데, ‘글쎄’의 용례에는 모두 반점이 찍혀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룬다. ‘글쎄’에 대한 논의이기는 하지만, 서태룡, 「감탄사의 담화 기능과 범주」, 『동악어문논집』 35, 동악어문학회, 1999ㄴ, p. 32에 따르면 ‘글쎄’는 그 분포와 기능을 기준으로 부사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그러게’도 부사가 아닌 감탄사를 분리해낼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글쎄’의 담화 기능과 사용 의미를 살펴본 이해영, 앞의 논문, pp. 131-133에 따르면 ‘글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글쎄’의 품사를 감탄사로 본 논의와 부사로 본 논의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글쎄’나 ‘그러게’의 품사 설정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감탄사의 이와 같은 분류는 최현배, 『우리말본(최종판)』, 정음문화사, 1971, pp. 607-610에 의한 것이다. 같은 책에서는 감정 감탄사를 ‘감정적 느낌씨’라, 의지 감탄사를 ‘의지적 느낌씨’라 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그러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위의 뜻풀이만을 보면 ‘글쎄’와 ‘그러게’ 사이의 의미상의 공통점이 없으나 ‘그러게’의 부사로서의 의미(1ㄴ[Ⅰ])를 보면 “자신의 말이 옳았음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라 하고 있어 ‘글쎄 「2」’와 그 뜻이 통함을 알 수 있다.[6]

마지막으로, ‘글쎄’와 ‘그러게’의 쓰임을 잠시 보도록 한다. ‘쓰임’이라는 용어는 다소 추상적인데, 형태상 관련되어 있는 어휘 및 그 쓰임 전체를 포괄하여 ‘쓰임’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우선 다음을 보자.

(3) ‘글쎄’와 ‘그러게’의 쓰임
ㄱ. 글쎄: 글쎄다, 글쎄올시다, 글쎄요, 글쎄 말이다.[7]
ㄴ. 그러게: 그러게요, 그러게 말이다.

위 (3)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글쎄’와 ‘그러게’는 ‘그러게’에 ‘*그러게다’와 ‘*그러게올시다’가 없을 뿐 그 외의 형태는 동일하다. “감탄사도 관형사, 부사처럼 활용하지 않는다. …… 감탄사에는 조사가 붙는 일이 없다.”란 남기심・고영근의[8] 언급에 비추

6) ‘글쎄’와 관련되어 있는 감탄사, ‘글쎄다, 글쎄올시다, 글쎄요’의 뜻을 보면 ‘글쎄’의 두 의미 「1」과 「2」 중 「1」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이 ‘글쎄’의 더 기본적인 의미일 것으로 보인다. ‘글쎄다, 글쎄올시다, 글쎄요’의 뜻은 다음과 같다(모두 『표준국어대사전』). “‘글쎄다’ 「감탄사」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 해라할 자리에 쓴다. / ‘글쎄올시다’ 「감탄사」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 하오할 자리에 쓴다. / ‘글쎄요’ 남의 물음이나 요구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 해요할 자리에 쓴다.” 한편, 『연세 한국어 사전』에서는 ‘글쎄 말이다’에 대해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한 긍정의 뜻을 나타냄.”이라 하여 다른 관련어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한불ᄌᆞ뎐』(1880)이 ‘글셰’에 대해 “동의의 표현(Terme d’approbation)”이라 한 것과 유사한 태도인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지 않다.

7) ‘글쎄 말이다’에는 ‘글쎄 말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글쎄 말이야’ 등을 모두 포함한다. (3ㄴ)의 ‘그러게 말이다’도 마찬가지이다.

8)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제3판)』, 탑출판사, 2011, p. 183.

어 보면 매우 이례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애초에 활용형이던 것이 감탄사로 전용된 것으로 보면[9]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겠다.[10]

지금까지 ‘글쎄’와 ‘그러게’의 공통점을 간단히 훑어보았다. 형태, 품사, 의미 그리고 쓰임 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런 공통점 때문인지 방언에서는 이 둘이 구분되지 않고 쓰이기도 하여 관련 방언형이 ‘글쎄’의 방언형인지 아니면 ‘그러게’의 방언형인지 판단이 쉽게 서지 않는 경우도 많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 방언형의 형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3. ‘글쎄’와 ‘그러게’의 기원과 방언형

본 장에서는 ‘글쎄’와 ‘그러게’의 방언형을 살펴 그것들의 형성 과정을 논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글쎄’와 ‘그러게’의 기원에 대해 생각해 본 뒤, 현대 국어의 방언형에 대해 관찰하기로 한다.

1) ‘글쎄’와 ‘그러게’의 기원

본 절에서는 ‘글쎄’와 ‘그러게’의 기원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글쎄’는 ‘그러게’에 비해 기원 및 구성이 불투명하다.[11] 이에 우

9) 이호권, 「감탄사」,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1(초판 개정17쇄), 한국브리태니커회사, 2001, p. 201.

10) ‘글쎄’ 관련 감탄사 목록을 검토한 서태룡, 「국어 감탄사에 대하여」, 『동악어문논집』 34, 동악어문학회, 1999ㄱ, pp. 18-19에 따르면 ‘글쎄’에 명령형이나 청유형이 불가능한 것은 ‘글쎄’가 형용사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라 하였다.

11) ‘글쎄’를 ‘본래부터의 감탄사’라 하고 있는 신지연, 「국어간투사(Interjection)의 위상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p. 38에서 이런 불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선 간단히 ‘그러게’에 대해 알아본 뒤 ‘글쎄’를 중심으로 논의를 펴도록 한다.

‘그러게’는 양명희나[12] 김양진의[13] 언급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기에’로부터 줄어든 말일 가능성이 크다.[14] 이는 형태론적으로 ‘그러게’를 ‘그러-’에 어미 ‘-기에’가 붙은 것으로 보는 것에 별 문제가 없는 점에 주안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방언에서 찾은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어미 ‘-기에’는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데(『표준국어대사전』), 서남 방언 화자에게 번역식 질문법으로 ‘글쎄’나 ‘그러게’의 방언형을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방언형이 ‘그랑께’인 경우가 흔하다.[15] 그런데 ‘그랑께’는 표준어의 ‘그러니까’에 해당하는데[16]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어미 ‘-니까’는 어미 ‘-니’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고 어미 ‘-니’는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오-’, ‘-더-’ 뒤에 붙

12) 양명희, 「텍스트에서의 ‘그러하다’의 쓰임」, 『텍스트언어학』 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995, p. 210.

13) 김양진, 『우리말 수첩』, 정보와사람, 2011, p. 77.

14) ‘그러-+-기에’는 활음화, 활음탈락에 의해 ‘그러게’가 되었을 것이다. 이는 김양진, 같은 책, p. 77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금시(今時)에’가 ‘금세’로, ‘홀지(忽地)에’가 ‘홀제’로 줄어드는 현상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5) ‘글쎄’나 ‘그러게’와 형태적 직결성이 있는 방언형은 본고 3장의 2)에서 제시된다.

16) 중앙어의 ‘그러니까’도 ‘그러게’와 같이 선행 발화에 대한 동의·동감의 담화 표지로 쓰인다. 우미혜, 앞의 논문, p. 58. 한편, ‘그러니까’의 동남 방언 방언형으로 ‘그라까네’ 등이 있고 ‘그러니’에 대해서는 ‘그러이’ 정도가 있는데 서남 방언의 ‘그랑께’와는 달리, 동남 방언 화자인 필자의 직관에 따르면, ‘그라까네’나 ‘그러이’가 표준어의 ‘글쎄’나 ‘그러게’에 해당된다는 즉답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본고 3장의 2)에서 논의되겠지만 동남 방언에서는 ‘그케’ 정도가 그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어) 「1」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17]이므로 의미적으로 '그러기에'의 '-기에'는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라 할 수 있는 것이다.[18]

이와 같이 기원이 비교적 명확한 '그러게'에 비해 '글쎄'는 그 기원이 불분명하다. '글쎄'의 기원을 찾기 위해 우선 근대 국어까지에서 보이는 문헌형을 찾아보고자 하였는데 실은 '글쎄'는 담화 표지로 쓰이는 것이어서 그 문헌형을 찾기는 어렵고 다음 (4)와 같이 개화기 이후의 사전 자료에서나 관련형을 찾을 수 있다.[19]

(4) 개화기 이후의 '글쎄'

ㄱ. 『한불ᄌᆞ뎐』(1880:172): 글셰, KEUL-SYEI, Sans doute, c'est ainsi. (Terme d'approbation. -Le synonyme 그러치 keu-re-tchi en diffère pour l'emploi).[20]

ㄴ. 『한영ᄌᆞ뎐』(1897:245): 글셰 s. A reply denoting uncertainty,

17) 어미 '-니'의 두 번째 뜻풀이는 "「2」 어떤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사실을 이어서 설명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이다.

18) 그러면 '그러게'는 '그러-'의 활용형으로부터 부사(접속 부사)가 된 뒤 감탄사로까지 쓰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활용형이 부사에 이어 감탄사로까지 쓰이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진호, 앞의 논문, pp. 129-130을 참고할 수 있다.

19) 어형검색프로그램으로 19세기 중반부터 개화기까지의 자료에서 '글셰'와 '글세'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19세기 중엽의 『남원고사(南原古詞)』(1864, 1869)에서 '글셰'와 '글세'를, 개화기의 신소설 『혈의루』에서 '글셰'를 볼 수 있으나 본고의 (4)와 그 형태가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원본을 확인하지도 못해 자료로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홍윤표 교수 소장 『춘향전』(154장본)에 '글서'(69)가 보이는데, 숙명여자대학교의 전상욱 선생님의 판독과 조언에 따르면 이는 현대국어의 '글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른바 off-glide y의 탈락(백두현,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1992, pp. 175-184)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20) '글셰'의 동의어로 '그러치'를 들고 있어 흥미롭다. 『표준국어대사전』의 '그렇지'는 '「감탄사」 틀림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하는 말.'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 풀이는 위에서 본 "동의의 표현(Terme d'approbation)"과 통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doubt, neither one thing nor another.

ㄷ. 『조선어사전』(1920:132): 글세 (感) さあ(人の質問に對して可否を判斷せざる時に發する語).[21]

ㄹ.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30:26): 글세 仔細히몰을ᄯᅢ에對答하는말.

ㅁ. 『조선어사전』(1938:224): 글쎄 (感) 대답할 말을 자세히 모를 때에 내는 말.

ㅂ. 『큰 사전』(1947:496): 글쎄 【느】 ① 그럴 듯도 하나 과연 확실히 그럴는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하는 말. ② 자기의 의견을 다시 고집하여 말할 때에 쓰는 말. ③ 남의 요구하는 것이나 묻는 말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고 어물어물 대답할 때에 내는 말.

위 (4)는 개화기 이후의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글쎄'의 문헌형이다. (ㄱ)은 1880년 파리외방선교회 한국선교단에서 편찬한 한불대역사전(韓佛對譯辭典)인 『한불ᄌᆞ뎐』의 예이고, (ㄴ)은 1897년 게일(Gale, J.S.)이 편찬한 한영사전(韓英辭典)인 『한영ᄌᆞ뎐』의 예이고, (ㄷ)은 1920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조선어사전』의 예이고, (ㄹ)은 1930년 심의린(沈宜麟)의 『보통학교 조선어사전』의 예이고, (ㅁ)은 1938년 문세영(文世榮)의 『조선어사전』의 예이고, (ㅂ)은 1947년 조선어학회의 『큰 사전』의 예이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고의 '글쎄'는 개화기 이후의 사전들에서 '글셰', '글세', '글쎄' 이렇게 세 형태로 나타난다. '글셰'의 두 번째 음절의 'ㅖ'는 'ㅅ' 뒤의 y 탈락과[22] 관련된 이표기일 것이므로 실제로는 '글세'라 보아도 좋을 것이니 '글세'와 '글쎄' 이렇게 두 형태만이 남는다. 이 두 형태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21) '(感)'의 '感'은 '감탄사(感歎詞)'가 아니라 '감동사(感動詞)'의 '感'이다.

22) 'ㅅ' 뒤의 y 탈락이라고 간단히 말했지만, 이는 실은 김주필, 「구개음화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pp. 42-44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ㅅ'의 음가 변화, 즉 s〉ʃ〉s와 관련된 변화를 가리킨 것이다.

지 아니면 [글쎄]를 ‘글세’로 표기하고 있는 데 불과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1930년과 1938년 사이에 경음화가 급작스럽게 진행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발음은 ‘글쎄’라 보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개화기 이후에 나타나는 ‘글쎄’의 사전형은 현대국어의 ‘글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위 (4)의 자료는 ‘글쎄’의 기원과 관련한 특별한 암시를 주는 바가 없는 것이다. 이에 ‘글쎄’의 기원과 관련하여 두 가지 가능한 후보를 들고 그 각각의 가능성에 대해 추론해 보고자 한다. 형태와 의미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23]

(5) ‘글쎄’의 기원으로 가능한 경우
ㄱ. 중세 국어의 ‘그럴씩’[24]
ㄴ. 중세 국어의 ‘그럴쎠’

위 (5ㄱ)은 어간 ‘그러(ᄒᆞ)-’와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 ‘-ㄹ씩’의 활용형이고, (ㄴ)은 어간 ‘그러(ᄒᆞ)-’와 감탄형 어미 ‘-ㄹ쎠’의 활용형이다. 전자는 어미의 기능 중 이유나 원인에 주목한 선택이고 후자는 ‘감탄’형이라는 어미의 명칭에 주목한 선택이다. ‘글쎄’의 기원이 이 둘 중 하나라면 (ㄴ)보다는 (ㄱ)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적 관점. ‘그럴씩’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가 통합한 활용형으로서, 본 절 모두에서 언급한 서남 방언의 ‘그랑께’나 중앙어의 ‘그러니까’ 역시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어미가

23) 다른 가능한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필자가 상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이 두 가지일 뿐이다.

24) ‘글쎄’의 기원으로 ‘그럴씩’에 주목하게 된 것은 가톨릭대학교의 배주채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 물론 그 외의 추론은 모두 본인의 것이어서 잘못 역시 본인의 것이다.

통합한 활용형이라는 점에서 그 관련성을 찾을 수 있으나 '그럴쎠'는 현대 국어의 '글쎄'와 의미상 관련성이 떨어진다.

둘째, 형태·통사적 관점. 현대 국어의 '글쎄'가 '그럴씩'에서 왔다면 활용형이 부사로 바뀐 뒤 다시 감탄사가 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럴쎠'에서 왔다면 감탄형이 결과적으로 감탄사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감탄형과 감탄사가 서법이나 명칭의 면에서 통하는 바 크지만 이는 감탄사를 신지연과[25] 같이 간투사라 하면 통하는 바가 사라질 뿐 아니라 현대 국어의 '글쎄 말이다, 글쎄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와 같은 쓰임을 보면 '글쎄'의 기원으로 '그럴쎠'보다 '그럴씩'가 나아 보인다. '그러(ᄒᆞ)-'의 연결 어미 활용형에서 기원한 부사 뒤에 '말이다, 말이에요, 말입니다'가 붙는 것이 다음과 같이 흔하기 때문이다.

(6) "그러(ᄒᆞ)-'의 연결 어미 활용형에서 기원한 부사 + '말이다, 말이에요, 말입니다" 구성
ㄱ. 그래서: 그래서 말이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
ㄴ.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
ㄷ. 그리고: 그리고 말이다, 그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입니다, ……
ㄹ. 그러게: 그러게 말이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
⋮ ⋮ ⋮ ⋮

위와 같이 '그러(ᄒᆞ)-'의 연결 어미 활용형에서 기원한 부사와 '말이다, 말이에요, 말입니다'의 결합은 여러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심지어 '글쎄'와 그 의미상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게'도 위와 같은 구성이 가능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라 하겠다(6ㄹ). 그런데 '그럴쎠'는 이와 같은 구성이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25) 신지연, 앞의 논문, pp. 3-4.

다. 다소 억지스러울지 모르겠으나 ‘그럴쎠’의 의미적 후대형 ‘그렇구나, 그렇도다’에 ‘말이다, 말이에요, 말입니다’가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26] 한편, ‘글쎄올시다’ 역시 ‘그럴쎠’보다는 ‘그럴씨’를 좀 더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미 ‘-올시다’는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어) 합쇼할 자리에 쓰여, 어떠한 사실을 평범하게 서술하는 종결 어미. 화자가 나이가 꽤 들어야 쓴다.”(『표준국어대사전』)와 같이 그 쓰임을 정리할 때, ‘-올시다’의 앞에는 종결 어미가 통합된 활용형보다는 명사나 부사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셋째, 음운적 관점. 현대 국어의 ‘글쎄’를 설명하기 위해 ‘그럴쎠’는 설명력이 떨어진다. 표준어와 중부 방언의 ‘글쎄’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ㅕ〉ㅖ’ 변화를 상정하여야 하나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럴씨’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럴쎠’에 비해서는 그럴 듯한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27]

(7) ‘그럴씨’로부터 ‘글쎄’로의 변화
ㄱ. 현대 국어의 ‘글쎄’: 그럴씨 〉 그럴씌 〉 그럴쎄 〉 글쎄
ㄱ′. 현대 국어의 ‘글씨’: 그럴씨 〉 그럴씌 〉 그럴쎄 〉 글쎄 〉 글씨
ㄴ. 현대 국어의 ‘글씨’: 그럴씨 〉 그럴씌 〉 그럴씨 〉 글씨

위 (7)과 같이 ‘ㆍㅣ〉ㅢ’ 변화에 이은 ‘ㅢ〉ㅖ’와 ‘ㅖ〉ㅣ’, ‘ㅢ〉ㅣ’ 등의 변화를 상정하면 현대 국어의 ‘글쎄’와 ‘글씨’를 설명하기에 부

26) 이는 ‘그럴씨’가 기원적으로 연결 어미에 의한 활용형인 데 반해 ‘그럴쎠’는 상대존대와 무관할 수 없는 종결 어미에 의한 활용형이기 때문에 ‘말이다, 말이에요, 말입니다’와 같은 다양한 상대존대의 경우에 모두 쓰일 수 없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27) 아울러, 근대국어 시기의 전반적인 종결어미의 양모음화 경향, 이를테면 ‘-져〉-쟈, -녀〉-냐, -려〉-랴’의 변화와 동궤인 변화에 따라 ‘-ᄅᆞ쎠’가 ‘-ᄅᆞ쌰’로 변한 점(이기문, 『국어사개설(개정판)』, 탑출판사, 1972, p. 215)도 ‘글쎄’의 기원으로 ‘그럴쎠’를 거부하게 한다.

족함이 없는 것이다.[28]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본고는 현대 국어의 '글쎄'가 기원적으로 중세 국어의 '그럴씨'로부터 온 것이라 추정하고자 한다.

2) '글쎄'와 '그러게'의 방언형

본 절에서는 주로 동남 방언과 서남 방언을 중심으로 '글쎄'와 '그러게'의 방언형을 살펴보아 방언형들 간의 관계를 논하도록 한다. 방언 자료는 주로 기존의 방언자료집을 이용하였고 필요한 경우 구술자료집의 방언형도 이용하려 한다. 우선 동남 방언의 방언형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8) '글쎄'와 '그러게'의 동남 방언[29]

ㄱ. 그케: (감) 글쎄(동의를 구하는 간투어). 방학주이 여내 문자가, 배가 고파 그랬다는 방학주이 그케 말이지(영덕).

ㄴ. 글케: (부) 글쎄. 글케, 고기 문젠기라(고령), 글케, 땅심을 지데로 받앴는지(고령), 글케 고기도 못 사는 물이 사람에겐 어떻켓노?(고령)

ㄷ. 구케: 구케 마리라여.

---

28) 물론 '그럴씨'로부터 변화된 가장 그럴 듯한 후대형은 '그럴쌔' 혹은 '글쌔'일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 또 '그럴씌'나 '그럴쎄' 등의 예가 문증되지 않는다는 점도 가벼이 넘길 일은 아니다. 한편, '·〉ㅓ(·|〉ㅐ)' 변화를 상정하면 변화 과정은 좀 더 단순해진다. '그럴씨〉그럴쎄〉글쎄'. 'ㅢ〉ㅐ'나 '·〉ㅓ' 변화에 대해서는 박기영, 「이중모음 '의'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의〉에'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병근선생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편집위원회, 태학사, 2006, pp. 133-153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그럴X〉글X'의 변화는 동남 방언의 '긇다(〈그렇다)'나 서남 방언의 '글다(〈그라다, 그러다)'(배주채, 「'그러다'류의 활용과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 『남학 이종철선생 회갑기념논총 한일어학논총』, 간행위원회, 국학자료원, 1995, p. 139)를 참고할 수 있다.

29) '글쎄'와 '그러게'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방언형이 많기 때문이다. 이하 모두 같다.

ㄹ. 그키: 그키(글쎄), 엎아뿌든가 안 하고 돌려 놓이 화암 처자들이 마 전신에 마 보따리를 사가 그래 도망을 갔단다.
ㅁ. 클케: 아이구, 그라머 그래 클케(글쎄) 그 늙은이가 그래 그래 가지고 이참봉네 한창 그거 할 때,……
ㅂ. 그렇게요: 그렇게요(글쎄요), 어무이가 계시머 참 좋지요.[30]
ㅅ. 그래게
ㅇ. 글씨
ㅈ. 글시
ㅊ. 그러시: 그러시, 그래도 댁까(될까)?
ㅋ. 그러시러: 그러시러, 마이도(많이-) 팔았네.

위 (8ㄱ,ㄴ)의 예는 『경북방언사전』(이상규, 태학사, 2000)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는 다른 동남 방언 자료집[3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캐’(“그러게”)가 그것인데 동남 방언에서 ‘에’와 ‘애’는 대립이 되지 않으므로 위 (ㄱ)과 실제로는 같다.[32] 그런데 (ㄱ,ㄴ)의 뜻풀이에서 보이는 ‘글쎄’를 통해 표준어의 ‘글쎄’는 동남방언의 ‘그케’와 ‘글케’로 이어짐을 알 수 있는데, 이 두 방언형은 표준어의 ‘글쎄’보다는 ‘그러게’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형태일 것

30) 여기의 ‘그렇게요’는 명백히 앞 말(“오늘은 눈도 설설 오고 우짠지 오매가 보고 젚다(싶다).”)에 대한 동의의 표현으로서, 『표준국어대사전』에 의지하면 ‘그러게요’라 번역해야 하나 ‘글쎄요’라 하고 있어 『표준국어대사전』의 ‘글쎄’의 입장과는 다르다.

31) 정석호, 『경북동남부 방언사전 - 영천·경주·포항을 중심으로 -』, 글누림, 2007, pp. 86-87.

32) 정석호, 같은 책, p. 86은 ‘그캐’가 “그러게”의 뜻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 외에, “‘그것 봐’의 뜻. 자신의 말이 옳았음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라 하여 뜻을 좀 더 풀어 놓고 있다. 정석호, 같은 책, p. 87에는 표제어 ‘그캐 말이다’와 그 뜻풀이 “그러게 말이다. 아무렴. ‘그렇고말고’의 뜻으로,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칠 때 쓰는 말.”을 제시해 놓아 표준어 ‘그러게’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한편, ‘그캐’는 “그러게”의 의미의 방언형이기도 하지만 ‘그캐라매’ (“그렇게 하라며”, 정석호, 같은 책, p. 80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의 줄임말이기도 하다.

이 명백하고 또 이 '그케'는 '글케'의 존재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로부터 온 것이 명확하다.[33] 한편, (8ㄷ)은 이상규[34]의 경북 상주 자료이고, (ㄹ,ㅁ,ㅂ)은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자료이고('그키, 클케'는 경남 울산의 자료(8-12:360, 363)이고 '그렇게요'는 경남 진주의 자료(8-3:220)임), (ㅅ)은 강원 강릉의 자료이고(『강릉방언사전』, 박성종 · 전혜숙, 태학사, 2009, pp. 62-63),[35] (ㅇ)은 경남 남해의 자료이고(『남해사투리사전』, 김종도 · 김우태, 남해신문사, 2005, p. 44), (ㅈ)은 부산의 자료이고(『니 어데 갔더노?』, 양희주, 조양, 2008, p. 34), (ㅊ,ㅋ)은 울산의 자료이다(『울산방언사전』, 신기상, 북스힐, 2014, p. 59). 전체적으로 보아 (ㄱ~ㅅ)은 '그러게'와 관련된 형태이고 나머지는 '글쎄'와 관련된 형태이다.[36]

'그러게'와 관련하여 (ㅂ)의 '그렇게요'와 (ㅅ)의 '그래게'가 시사

---

33) 앞 절에서 '글쎄'의 기원 후보로 '그럴씨'와 '그럴쎠'를 들었는데, 다른 후보로 '그렇-' 혹은 '긇-(〈그렇-)'에 모종의 어미 '-세'가 통합된 형태가 가능할지 모른다. '그렇-+-세→그러쎄〉글쎄'나 '긇-+-세→글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혹시 근대 국어의 '-쇠'와 그것의 후대형인 '-세'가 떠오를지 모르나 이 '-세'는, 첫째, 'ㄹ'이 선행하여 '-ㄹ세' 형태로만 쓰일 뿐 아니라, 둘째, '이다'나 '아니다'의 어간에 붙는 것이 일반적이고, 셋째, '하게체' 종결어미이기도 하므로 '글쎄'는 어미 '-ㄹ세'와 거의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준국어대사전』의 '-ㄹ세'는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어미」 ('이다',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 「1」 하게 할 자리에 쓰여, 자기의 생각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종결 어미. 뒤에는 보조사 '그려'가 붙을 수 있다. 「2」 하게 할 자리에 쓰여, 무엇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34) 이상규, 『경북 상주 지역의 언어와 생활(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자료 총서 7-1)』, 태학사, 2007, p. 188.

35)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강원 영동방언은 동남 방언에 속한다. 한편, 강원 영동남부에서 '글쎄'도 쓰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글쎄올시다. 글쎄 말입니다."의 뜻으로 풀이되어 있는 표제어 "글쎄 말이게요"(『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이경진, 예문사, 2002, p. 49).

36) '클케'와 '그러시러'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렵다.

적이라면 '글쎄'와 관련하여서는 (ㅊ)의 '그러시'가 눈에 띈다. 동남 방언의 '그러게'의 대표형이 '그케'와 이의 선대형일 것으로 추정되는 '글케'라면 이 '글케'의 선대형으로 (ㅂ)의 '그렇게(요)'를 들 수 있고, 박성종·전혜숙을[37] 보면 표준어의 '그러-'가 강릉 방언에서 '그래-'로 나오는데('그래다(그러다), 그래나(그러나), 그래니(그러니), 그래니까(그러니까) 그래더(그러다가)' 등), 이를 보면 역시 '그러게'는 '그러-'의 활용형에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ㅊ)의 '그러시'가 주목되는 까닭은 '글쎄'의 변화형인 '글씨'나 '글시'의 선대형으로 (ㅊ)의 '그러시'를 들 수 있을 텐데 'ㅅ' 앞의 'ㄹ' 탈락을 상정하면(그러시〈*그럴시) '그럴씩'와의 유관성이 좀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서남 방언 자료이다.

(9) '글쎄'와 '그러게'의 서남 방언
ㄱ. 글씨(담양, 함평, 해남, 광양)
ㄴ. 클씨(담양, 영광)
ㄷ. 큼시(담양): 큼시, 네 말이 그 말이여(=그러게, 내 말이 그 말이야).
ㄹ. 글메(담양, 보성)
ㅁ. 금메(담양, 광산, 나주, 진도, 완도, 강진, 보성, 광양, 순천): 금메 말이시(=글쎄 말일세).
ㅂ. 끔메(무안)
ㅅ. 큼메(담양, 화순): 동지 섣달에 복숭이 어디 있어 큼메(=동지 섣달에 복숭아가 어디 있어 글쎄)?

위 (9)의 자료는 『전남방언사전』(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 태학사, 1998)에서 가져온 것으로서[38] 모두 서남 방

37) 박성종·전혜숙, 앞의 책, pp. 62-63.

38) 이 사전에는 "글쎄"의 뜻을 가진 방언형으로 '근다고'도 제시되어 있는데(〈전남〉[담양, 신안] 오메, 근다고 인자사 오네(=어마, 글쎄 이제야 오네).), 사전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그런다고) "그런다고" 정도의

언 중 전남의 방언이다.[39] 위 자료는 대체로 ‘글쎄’와 형태론적 관련성이 뚜렷한 ‘글씨, 클씨’와, 그 관련성이 떨어지는 ‘글메, 금메, 끔메, 큼메’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사전의 뜻풀이는 ‘글씨, 글메, 금메, 끔메’가 “글쎄”로, ‘클씨, 큼메, 큼시’가 “글쎄. 그러게(남의 말에 동의를 표하는 말).”로 되어 있어 위 (8)의 동남 방언과 같이 ‘글쎄’와 ‘그러게’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위 (9)와 거의 유사하나 같지는 않은 서남 방언의 ‘글세’와 ‘그러게’이다.

(9′) ‘글쎄’와 ‘그러게’의 서남 방언
ㄱ. 글시
ㄴ. 클쎄
ㄷ. 글매(“글매 관자란 것언, 먼짐 와서 글 마이 배우고 장개 간 사람덜, 고걸 관자라고 해.”), 글마(“글마 쟁기질을 보면”), 금매(“금매 그랑께 차례가 있제.”)

위 (9′ㄱ)은 『전라도 방언사전』(주갑동, 수필과비평사, 2005)에서 가져온 것이고, (ㄴ)은 이기갑에서 가져온 것이고,[40] (ㄷ)은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2(벌교)』(글매, 글마)와 『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9(진도)』(금매)에서 가져온 것이다. 앞의 (9)와 함께 서남 방언의 자료로 들어 둔다.[41]

문맥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 형태는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39) 이태영, 『문학 속의 전라 방언(국립국어원 문학 속의 방언 총서 2)』, 글누림, 2010, p. 88에 따르면 ‘금매’는 전남 방언의 전형적인 어휘이지만, 전남 방언과의 접촉 지역인 남원 방언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또 이태영, 같은 책, p. 87에는 이 방언형이 함경도에서도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40) 이기갑, 『전남 진도 지역의 언어와 생활(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6-2)』, 태학사, 2009, p. 154. 원래의 자료는 ‘글쎄요’이나 ‘요’를 빼고 제시한다.

41) 관련된 점 몇 가지를 지적해 둔다. 첫째, ‘글시’와 ‘금매’는 ‘글시말시’와 ‘금매말이시’에서도 쓰인다(주갑동, 앞의 책, p. 37). 둘째, 전남의 여수에

다음의 동남과 서남 이외의 방언에서 발견되는 ‘글쎄’와 ‘그러게’의 자료이다.

(10) 그 외 지역의 ‘글쎄’와 ‘그러게’
ㄱ. 제주 방언: 걸세, 겔세, 겔쎄, 게메[42]
ㄱ′. 제주 방언: 계메
ㄴ. 중부 방언: 그세, 그쎄(경기), 그째, 그쎄, 글쌔(충청), 글씨(충청), 그쎄, 긑쎄(대전), 걸쎄, 길쎄(황해), 그쎄(강원 홍천)
ㄷ. 서북 방언: 그쎄, 글쎄, 기쎄, 길쎄[43]
ㄹ. 동북 방언: 글세

위 (10)은 제주, 중부, 서북, 동북 방언의 ‘글쎄’와 ‘그러게’이다. (ㄱ)의 제주 방언은 강영봉・김동윤・김순자[44]에서 가져온 것이고, (ㄱ′)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가져온 것이고(제주 북제주의 자료(9-1:45)), (ㄴ)의 중부 방언은 최명옥,[45] 박경래,[46] 한영목,[47]

서 ‘글씨, 금매’와 함께 ‘그캐’라는 방언형이 쓰인다고 하는데(『방언사전[여수편]』, 이희순, 어드북스, 2004, p. 50), 이는 동남 방언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9′ㄷ)의 자료로 4항식을 만들어 보면 ‘글매:글마=금매:X’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X로 ‘금마’를 도출해 낼 수 있겠는데 주갑동, 앞의 책, p. 37에는 ‘금마’의 뜻이 “그렇구만.”으로 되어 있다.

42) 『제주말 큰사전』(송상조, 한국문화사, 2007, pp. 46-47)에는 표제어로 ‘게, 게메, 게메게’가 제시되어 있고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게’에 ‘메’가 덧붙은 말이 ‘게메’이고 이 ‘게메’에 다시 ‘게’가 덧붙은 말이 ‘게메게’인 것으로 되어 있다.

43) 『방언사전』(김병제,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0, p. 484)에 “글쎄 [감] 남의 물음에 대하여 확실하지 못한 태도를 나타낼 때 쓰는 말”로 표제어 ‘아사’가 제시되어 있으나 형태적으로 ‘아사’는 ‘글쎄’나 ‘그러게’와 아무런 관련도 없으므로 자료로 제시하지 않는다.

44) 강영봉・김동윤・김순자, 『문학 속의 제주 방언(국립국어원 문학 속의 방언 총서 4)』, 글누림, 2010, p. 34, pp. 37-38.

45) 최명옥, 『경기 파주 지역의 언어와 생활(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1-3)』, 태학사, 2011, p. 240, p. 250.

한영목,[48] 황대화,[49] 김봉국[50]에서 가져온 것이고, (ㄷ)의 서북 방언은 『평북방언사전』(김이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p. 72, 74, 81)에서 가져온 것이고, (ㄹ)의 동북 방언은 『함북방언사전』(김태균, 경기대학교 출판국, 1986, p. 85)에서 가져온 것이다.[51] 제주 방언의 '게메'와 '계메'를 제외하고는 모두 표준어의 '글쎄'와 형태적으로 맥이 닿아 있다. 중부 방언과 서북 방언 방언형의 뜻은 모두 "글쎄"이고 제주 방언 방언형의 뜻도 모두 "글쎄"이나 '게메'는 "그러게"의 뜻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52] "그러니까"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53] 이 점은 3장 모두 부분에서 보았던 서남 방언의 '그랑께'를 떠올리게 하여 매우 흥미롭다.

지금까지 본 절에서는 전국의 방언 중 몇 군데 방언의 '글쎄'와 '그러게'를 듬성등성 살펴보았다. 이들은 형태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

46) 박경래, 『충북 충주 지역의 언어와 생활(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3-3)』, 태학사, 2011, p. 302, p. 448, p. 410.

47) 한영목, 『충남 금산 지역어 연구』, 한국문화사, 2000, p. 295.

48) 한영목, 『대전 서구 지역의 언어와 생활(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4-1)』, 태학사, 2007, p. 22, p. 28.

49) 황대화, 『황해도방언연구』, 한국문화사, 2007, p. 334.

50) 김봉국, 『강원 홍천 지역의 언어와 생활(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2-3)』, 태학사, 2011, p. 24.

51) '글세'는 『함북방언사전』에서 표준어의 '그래'에 해당하는 방언형 '그래, 그러마, 글세' 중의 하나로 제시된 방언형으로("그래 (감) 대답하는 말로서 아랫 사람에게 씀. ※ 그래, 가마."), 동의를 나타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52) 강영봉 · 김동윤 · 김순자, 앞의 책, pp. 37-38.

53) 강영봉, 『제주 한경 지역의 언어와 생활(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9-1)』, 태학사, 2007, pp. 190, 194.

(11) ‘글쎄’와 ‘그러게’ 방언형의 형태적 분류
ㄱ. ‘글쎄’형: 글씨, 글시, 그러시, 그러시러(이상 동남 방언), 글씨, 글시, 클쎄, 클씨(이상 서남 방언), 글쎄, 그쎄, 길쎄, 기쎄(이상 서북 방언), 글세(동북 방언), 걸세, 겔세, 겔쎄(이상 제주 방언), 그세, 그쎄, 그쌔, 근쎄, 글쌔, 글씨, 걸쎄, 길쎄(이상 중부 방언)
ㄴ. ‘그러게’형: 글케, 그케, 구케, 그키, 클케, 그렇게요(이상 동남 방언)
ㄷ. ‘ㅁ’형: 글메, 글매, 글마, 금메, 금매, 끔메, 큼메(이상 서남 방언), 게메, 계메(제주 방언)
ㄹ. 불분명: 큼시(서남 방언)

위 (11)은 본 절 (8)에서 (10)까지의 자료를 형태적인 유사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크게 ‘글쎄’형, ‘그러게’형, ‘ㅁ’형 등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글쎄’형 방언형들 간의, 그리고 ‘그러게’형 방언형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게’는 위 (8)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글쎄’형만 보면, 서북 방언의 ‘ㅣ’나 제주 방언의 ‘ㅓ, ㅖ’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ㅖ〉ㅣ’ 변화(‘글씨’)나 유음 탈락(‘그쎄, 기쎄’), 어두 자음의 격음화(‘클쎄, 클씨’)[54]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ㄷ)의 ‘ㅁ’형과 (ㄹ)의 예는 그 기원이 불투명한데, (ㄹ)은 그 형태상 ‘글쎄’형과 ‘ㅁ’형의 혼효일 가능성이 있겠으나 한 개의 예에 불과해 더 이상의 추정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겠고, (ㄷ)의 ‘ㅁ’형에 대해서는 ‘그러매(요)’[55]를 통해 본고는 이들 ‘ㅁ’형이 ‘그럼에’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

54) ‘어두 자음의 격음화’는 정인호, 「전남 화순지역어에서의 운율 및 그와 관련된 음운변화」,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pp. 298-300의 용어이다. 같은 논문에 따르면 서남 방언(화순지역어)에서는 ① 부사(또는 감탄사)라는 품사 범주에서, ② 표현적 장음이 어두에 실현됨과 함께, ③ 모음이 무성화함으로써 격음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같은 논문에서 ‘클씨’(“글쎄”)와 ‘큼매’ (“그러게”)가 제시되어 있다.
55) 임우기 · 정호웅, 『『토지』 사전』, 솔, 1997, p. 47.

다.[56] 이는 다분히 '글쎄'의 기원이 '그럴씩'에 있다는 본고의 주장과 이어져 있는데, 이현희[57]나 정재영[58]에 따르면 어미 '-ㄹ씩'는 기원적으로 '-ㄹ+ᄉᆞ+ᄋᆡ'의 구성에 의한 것이고 여기서 'ᄋᆡ'는 처격조사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현희의 언급 "'ᄉᆞ'가 소멸되거나 사용상 기피되면 '-옴애' 정도로 이해될 수밖에 없을 터"[59]를, 필자는 '-ㄹ씩'가 소멸되면 '-옴애'로 대체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옴애'를, '-ㄹ씩'의 'ᄉᆞ'에 대당하는 명사형어미 '-옴'과 '-ㄹ씩'의 'ᄋᆡ'에 대당하는 처격조사 '애'의 결합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옴애'를 고려하면 본고 (11ㄷ)의 'ㅁ'형 방언형은 '그럼에'의 변화형이라 볼 수 있고 몇몇 예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설명이 가능하다.[60] 이에 본고는 위 (11ㄷ)의 "'ㅁ'형"을 "'그럼에'형"이라 바꿔 부르기로 한다. 이렇게 보면 '글쎄'와 '그러게'의 방언형들은 '글쎄'와 관련된 것, '그러게'와 관련된 것, '그럼에'와 관련된 것, 불분명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의 셋은 기원적으로 '그러-'의 명사형 구성과 처격 조사 '에'의 결합에 의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61]

---

56) 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안대현 선생님의 조언에 따른 것임을 밝혀 사의를 표한다.

57) 이현희, 「「소학」의 언해에 대한 비교연구 - 형태·통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5, 한신대학, 1988, p. 244.

58) 정재영, 『의존명사 'ᄃᆞ'의 문법화』, 태학사, 1996, p. 40.

59) 이현희, 앞의 논문, p. 244.

60) 본고의 논리를 따르면 '금메, 금매, 끔메, 큼메' 등은 'ㄹ+ㅁ〉ㅁ+ㅁ'의 변화를 상정해야 설명이 가능한데 이 변화는 일반적이지 않아 문제가 된다. 혹자는 서남 방언의 '함머니("할머니"), 음마("얼마"), 섬마("설마")'를 떠올릴지 모르나 이들은 'ㄴ+ㅁ〉ㅁ+ㅁ'의 변화로 설명하여야 할 것들이기에 본고의 예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혹시 동해안 방언의 'ㅁㅁ' 자음군 어간의 변화가 이와 관련되어 있을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ㅁㅁ' 자음군 어간은 최명옥, 『경북 동해안 방언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p. 203에서 그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방언의 '섬물("썰물"), 밈물("밀물")' 역시 같은 과정의 변화에 의한 것일 것이다.

61) 결국 '그러기에'를 '그러기(그러-+-기)+에'의 기원적 구성으로 이해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보면 근대 국어 시기의 '-ㄹ씩' 세력의 축소 원인을

우리의 이러한 추론에는 한 가지 더 추궁되어야 할 점이 있다. '-ㄹ씨'의 소멸에도[62] 불구하고 '그럴씨'로부터 온 '글씨'는 왜 소멸되지 않았냐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를 제시할 능력이 없다. 다만 이를 '-ㄹ씨'의 기능 변화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현희에 따르면 어미 '-ㄹ씨'는 이미 16세기부터 전 시기의 원인·이유의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나 전제·양보를 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63] 이렇게 어미 '-ㄹ씨'에 원래의 뜻으로부터의 의미 변화가 일어남과 함께 중세국어 시기에 접속부사 '그럴씨'가 가지고 있던 원인·이유의 기능을 근대국어 시기에는 '그러모로(그러ᄒᆞ모로)' 등이 대신하게 되면서 '그럴씨'는 다른 의미 기능을 획득하면서 그 형태를 존속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자 한다.[64]

'-매'나 '-기에' 등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다른 연결 어미가 발달한 데서 찾을 수 있다는 이용, 『연결 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역락, 2003, p. 204의 언급과 본고의 현대 국어 방언 자료는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위 (11)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방언 분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글쎄'형이 전국을 석권하고 있는 가운데, 서남 방언과 제주 방언에는 '그럼에'형이, 동남 방언에는 '그러게'형이 우세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62) 어미 '-ㄹ씨'의 기능 변화와 소멸 과정은 리의도,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1990, pp. 198-199. ; 이용, 앞의 논문, pp. 189-204를 참고할 수 있다.

63) 이현희, 앞의 논문, pp. 212-215. 한편, 리의도, 앞의 책, pp. 198-199에 따르면 '-ㄹ씨'는 17세기에 '이유' 외에 '설명 계속'의 뜻으로도 나타난다고 한다.

64) 이 추측에는, '그럴씨'가 중세국어 시기에 이미 접속부사로의 문법화가 완성되어 있어(안주호, 「'그러-' 계열 접속사의 형성과정과 문법화」, 『국어학』 35, 국어학회, 2000, pp. 129-133) 그 내부에 언어의 화석(본고의 '-ㄹ씨')이 이후로도 계속 남아있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특별히 이상하지 않은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4. 결론

본고는 감탄사 ‘글쎄’와 ‘그러게’의 방언형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방언형을 그 출현 지역 및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방언형 간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그 형성 과정을 논하였다.

논의의 구성 및 새롭게 밝혀낸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글쎄’와 ‘그러게’의 관계를 간단히 알아보았다. 형태, 의미, 쓰임 등 여러 가지 면에서의 공통점으로 인해 방언에서 이 둘이 별 차이 없이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글쎄’와 ‘그러게’의 방언형을 살펴보고 그 형성과정을 논하되, 우선 이 둘의 기원적 구성에 대한 추론을 펼친 뒤(3.1)), 방언형들 간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다(3.2)). ‘그러게’는 ‘그러기에(‘그러-+-기에’ 혹은 ‘그러-+-기+에’)가 줄어든 말로 보이며, ‘글쎄’는 중세 국어의 ‘그럴씨’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큼을 말하였다. 이렇게 보면 ‘글쎄’와 ‘그러게’ 모두 ‘그러-’의 활용형에서 온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언형들은 ‘글쎄’와 관련된 것, ‘그러게’와 관련된 것, ‘그럼에’와 관련된 것, 불분명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의 셋은 기원적으로 ‘그러-’의 명사형 구성과 처격 조사 ‘에’의 결합에 의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미진한 점도 많이 있다. 우선, 담화 표지라는 연구 대상의 태생적 조건 때문에 문헌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기원에 대한 논의는 실증적이지 못하고 추론에 의한 바 컸다. 이에 추론의 근거가 될 변화의 중간형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본 논의의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방언 자료 역시 충분했던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근래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구술 자료는 그 성격상 담화 표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쉽게도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고가 관심을 기울였던 어사들의 기

원과 관련하여 가능한 경우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하는 물음에도 확신에 찬 답을 하기에는 논의가 다소 미진하지 않았나 한다. 앞으로의 논의에서 더 보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

김은정, 「담화표지 ‘그래・글쎄・아니’의 기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p. 1–85.

김주필, 「구개음화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pp. 1–86.

박기영, 「이중모음 ‘의’의 변화에 대한 일고찰: ‘의〉에’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병근선생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편집위원회, 태학사, 2006, pp. 133–153.

배주채, 「‘그러다’류의 활용과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 『남학 이종철선생 회갑기념논총 한일어학논총』, 간행위원회, 국학자료원, 1995, pp. 125–148.

서태룡, 「국어 감탄사에 대하여」, 『동악어문논집』 34, 동악어문학회, 1999ㄱ, pp. 7–36.

서태룡, 「감탄사의 담화 기능과 범주」, 『동악어문논집』 35, 동악어문학회, 1999ㄴ, pp. 21–49.

신지연, 「국어간투사(Interjection)의 위상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pp. 1–72.

안주호, 「‘그러–’ 계열 접속사의 형성과정과 문법화」, 『국어학』 35, 국어학회, 2000, pp. 113–141.

양명희, 「텍스트에서의 ‘그러하다’의 쓰임」, 『텍스트언어학』 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995, pp. 205–235.

오승신, 「담화상에서의 간투사의 기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2–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97, pp. 53–86.

우미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담화표지 연구: ‘글쎄’, ‘그러게’, ‘그러니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p. 1–88.

이진호, 「감탄사 ‘하모’ 계통의 방언형에 대하여」, 『방언학』 19, 한국방언학회,

2014, pp. 121–135.
이해영, 「담화표지 '글쎄'의 담화기능과 사용의미」, 『이화어문논집』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1994, pp. 129–150.
이현희, 「「소학」의 언해에 대한 비교연구 – 형태·통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 『한신논문집』 5, 한신대학, 1988, pp. 205–248.
이호권, 「감탄사」,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 1(초판 개정17쇄), 한국브리태니커회사, 2001, p. 201.
정인호, 「전남 화순지역어에서의 운율 및 그와 관련된 음운변화」, 『국어국문학』 140, 국어국문학회, 2005, pp. 277–304.

2. 단행본
강영봉, 『제주 한경 지역의 언어와 생활(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9–1)』, 태학사, 2007.
강영봉·김동윤·김순자, 『문학 속의 제주 방언(국립국어원 문학 속의 방언 총서 4)』, 글누림, 2010.
김병제, 『방언사전』,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0.
김봉국, 『강원 홍천 지역의 언어와 생활(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2–3)』, 태학사, 2011.
김양진, 『우리말 수첩』, 정보와사람, 2011.
김이협, 『평북방언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김종도·김우태, 『남해사투리사전』, 남해신문사, 2005.
김태균, 『함북방언사전』, 경기대학교 출판국, 1986.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제3판)』, 탑출판사, 2011.
리의도,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1990.
박경래, 『충북 충주 지역의 언어와 생활(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3–3)』, 태학사, 2011.
박성종·전혜숙, 『강릉방언사전』, 태학사, 2009.
백두현, 『영남 문헌어의 음운사 연구』, 태학사, 1992.
송상조,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2007.
신기상, 『울산방언사전』, 북스힐, 2014.
양희주, 『니 어데 갔더노?』, 조양, 2008.
이경진, 『강원도 영동남부지방 방언』, 예문사, 2002.
이기갑, 『전남 진도 지역의 언어와 생활(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6–2)』, 태학사, 2009.
이기갑·고광모·기세관·정제문·송하진, 『전남방언사전』, 태학사, 1998.

이기문, 『국어사개설(개정판)』, 탑출판사, 1972.
이상규,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2000.
이상규, 『경북 상주 지역의 언어와 생활(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자료 총서 7-1)』, 태학사, 2007.
이용, 『연결 어미의 형성에 관한 연구』, 역락, 2003.
이태영, 『문학 속의 전라 방언(국립국어원 문학 속의 방언 총서 2)』, 글누림, 2010.
이희순, 『방언사전 [여수편]』, 어드북스, 2004.
임우기・정호웅, 『『토지』 사전』, 솔, 1997.
정석호, 『경북동남부 방언사전 – 영천・경주・포항을 중심으로 –』, 글누림, 2007.
정재영, 『의존명사 ‘ᄃᆞ’의 문법화』, 태학사, 1996.
주갑동, 『전라도 방언사전』, 수필과비평사, 2005.
최명옥, 『경북 동해안 방언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0.
최명옥, 『경기 파주 지역의 언어와 생활(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1-3)』, 태학사, 2011.
최현배, 『우리말본(최종판)』, 정음문화사, 1971.
한영목, 『충남 금산 지역어 연구』, 한국문화사, 2000.
한영목, 『대전 서구 지역의 언어와 생활(국립국어원 지역어 구술 자료 총서 4-1)』, 태학사, 2007.
황대화, 『황해도방언연구』, 한국문화사, 2007.

[Abstract]

Origin and Dialectal Forms of “geulsse” and “geureoge”

Lee, Sang-Sin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dialectal forms of ‘geulsse’ and ‘geureoge’, especially historical forming processes of ‘geulsse’ and ‘geureog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I investigate dictionary materials and dialectal materials related with ‘geulsse’ and ‘geureoge’. On the basis of this, I inquire into history of that words. Through this study, first, I have shown that ‘geulsse’ and ‘geureoge’ are similar at various points, second, ‘geureoge’ is from ‘geureo-+-gie’ or ‘geureo-+-gi+e’, third, ‘geulsse’ is from ‘geureolssae’, fourth, ‘geulsse’ and ‘geureoge’ are originally conjugational forms of verb ‘geureo-’, lastly, dialectal forms of ‘geulsse’ and ‘geureoge’ are divided into the category of ‘geulsse’ and the category of ‘geureoge’ and the category of ‘geureome’.

Key words: geulsse, geureoge, interjection, conjugational form, dialectal forms

이상신
소속: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031-219-2818
전자우편: tjfh92@ajou.ac.kr

이 논문은 2014년 7월 14일 투고하여
2014년 8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8월 18일 게재 확정함.